

01 교회소식

주님을 만나 행복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셋째 아들을 얻게 된 아르헨티나 크리스티안 성도와 만민을 만나 새사람이 된 송기주 집사 간증.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기 어렵다.

03 기획특집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1)

이스라엘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04 만민 성지순례' 현장의 감동을 되새기며 주님의 발자취와 함께한다.

04 간증

“내 사정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제단을 만나 하나님께 영태의 축복까지 받은 최성민 집사와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치료받은 김효진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875호 2019년 2월 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해외에서 온 편지

“셋째 아들 벤하민이 출생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으나 28주차에 고혈압으로 태반 박리현상을 겪으면서 사산하였지요. 내부 출혈로 인한 자궁 완전 손실의 위험이 있어 아내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2018년 초, 아내가 다시 임신하여 병원에 갔더니 12주를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혈압과 혈전성향증(혈액응고 이상 증세)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병원을 소개해 주어서 찾아갔는데도 산모와 태아 모두 목숨이 위험한 일이라며 치료를 거부했지요. 저희는 다시 이전 병원을 찾아가 치료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의사는 약물치료와 함께 아주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르헨티나 만민 가정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가지 못했는데 2018년 3월경에는 온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여 화

상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으니 아내와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리라 믿었지요. 임신 6개월이 되자 의사도 모든 것이 정상이며 아이도 문제없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8개월에 아내는 혈액응고 증세가 나타나 심각한 빈혈로 인해 수혈을 받아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약물치료마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니 아내는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내는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체중으로 태어났지만 매우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의사들을 매우 놀라게 했지요. 아내 또한 산후조리 후 집안일은 물론 세 아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통해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9. 1. 2.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안 에세끼엘 살라스 성도 올림



“폭력 남편은 옛말, 금실 좋은 부부랍니다!”

송기주 집사(75세)

그러자 아내는 우울증이 사라지고 권능의 기도로 10년 된 피부병까지 치료받았으며, 저 또한 기도받고 복막염을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대반전의 역사

평생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된 저희 부부는 가족 같은 강동지성 전 성도님들에게 작은 행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차량봉사도, 음식 솜씨 좋은 아내는 주말마다 맛깔 나는 반찬을 준비하여 정성껏 섬겼지요.

그러던 2016년 말, 이전에 하던 목수 일을 다시 하게 됐는데 층축 공사장 5층 건물에서 떨어질 뻔한 위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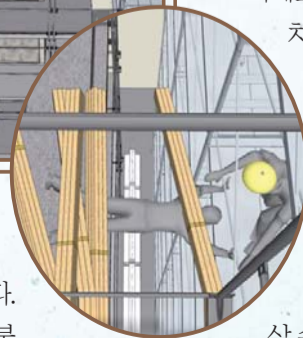
건물 바깥쪽 5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쌓여 있던 각목 뭉치가 제 머리 위로 떨어져 쓰러진 것입니다. 임시 벽을 설치하기 위해 박아놓은 철골을 두 팔로 붙들었지만 작업판 위에 걸려진 다리로 몸의 하중을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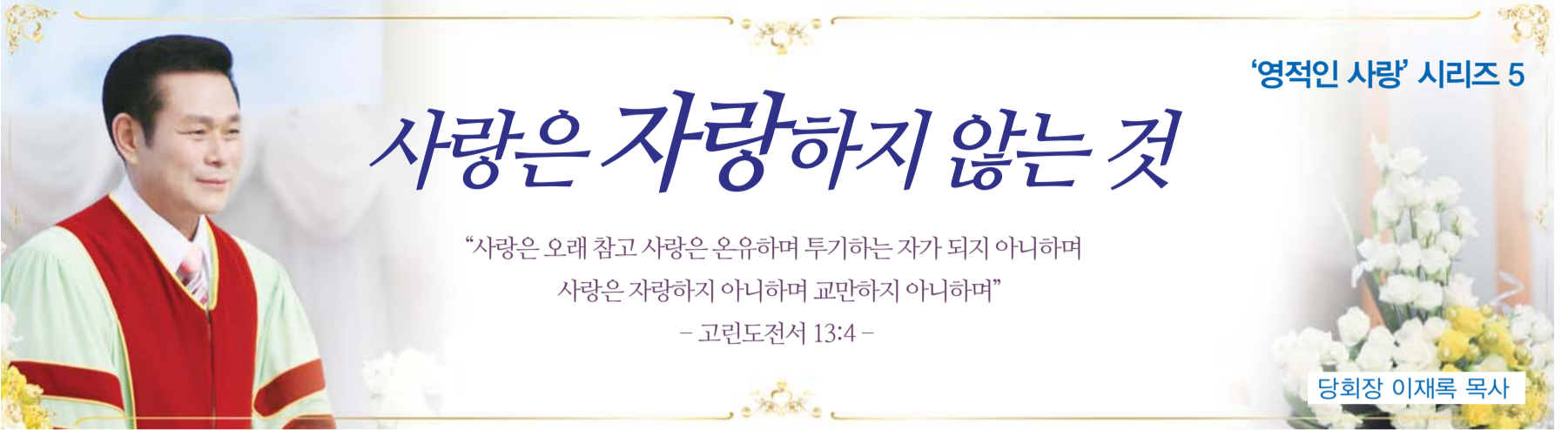
티기가 힘들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리 위로 또 다시 각목 뭉치가 떨어져 제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10분 후 저는 동료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병원 검사 결과 각목 뭉치가 떨어졌던 머리와 다리에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한 동료는 “아침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일하시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18년에는 장막의 축복도 받고, 2019년 새해 들어서는 75세의 나이에 좋은 일터에 취직해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 일어난 인생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강건하면 팔십이라 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소망 가운데 건강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사랑' 시리즈 5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 -

당회장 이재록 목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더 나은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내세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자기 자랑으로 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 알아주기 원하며 우쭐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랑'이란 간단히 말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랑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에는 몹시 인색합니다. 남이 드러나는 만큼 자신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니 어찌하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자랑이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영적인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자기 자랑을 하면 높아지고 인정받을 것 같지만, 진심 어린 존경이나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약 4:16). 그래서 영적인 사랑의 항목 중 하나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한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기도로 앗수르 제국의 공격을 이겨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눈물로 기도하여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생의 자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외교 사절단을 보냈을 때입니다. 기분이 몹시 좋아진 히스기야는 들뜬 나머지 그들에게 자신의 보물과 성전의 기물들을 보여 주며 위세를 자랑합니다. 결국 그 자랑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사 39:1~6).

이처럼 자랑하는 마음은 헛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랑, 참사랑을 이루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람에게 없으면 나를 만큼 권능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3차에 걸쳐 이방인을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임을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일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행함을 보였을 때 질병 치료, 물질의 축복,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요(잠 8:17).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등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과 생명을 심어 줍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고 마음의 소원도 더 신속히 응답되지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했기에 축복받았다'고 으스스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한 결과가 열매로 드러나 이런저런 시험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범사에 덕을 세우는 말, 상대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롬 15:2). 정수기의 필터를 거쳐 물이 정화되듯이 성급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한지, 혹은 상처가 되는지를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하겠습니다.

1.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이생의 자랑'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대는 속성으로, 죄악 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고 우쭐대며 자랑하게 마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요함을,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요. 즉 자신이 가진 돈과 외모, 명예, 권세 등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 안에서의 자랑'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한 대로 '주 안에서의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간증'이지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했지요. 사실 바울은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

3.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는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천국에서는 길조차 정금이니 이 땅의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만일 지옥에 간다면 아무리 부와 지식,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 한들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마태복음 16장 26~2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이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욕심을 불러일으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득 채워 나가면 이생의 자랑을 뽑아

버릴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찬란한 천국의 황금보석과 아름다움을 알고 믿으면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여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고, 설령 여러 가지 연단을 겪는다 해도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칭찬을 받는다 해서 들뜨지도 않고, 책망을 받는다 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여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연하여 진다’는 것을 완고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앞사귀를 내는 것’은 메시아니즘 주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982년 교회 개척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주셨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한 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여 경작하시는 섭리를 알려 주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때는 뛰어난 민족으로서 큰 영화를 누렸다. 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는 타국에서 유랑하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유지되어 왔고 마침내 독립하여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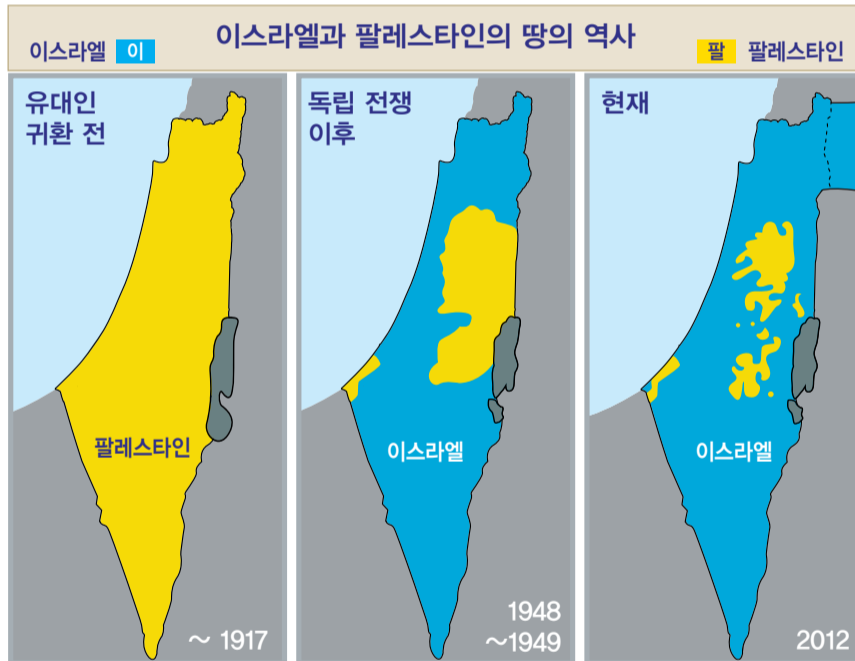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1)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앞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 24:32~33)

***이스라엘 독립은 마지막 때의 징조**

많은 사람이 ‘유대인의 생존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유대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받았던 박해와 핍박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역사만 보

타나 복음의 회귀가 이뤄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1989년에 시작된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밝은 영감 속에 마치 성경 속의 현장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주셨다.



특히 2004년 성지순례는 “주님의 행적을 더듬어 볼 때 예전과 감동이 전혀 다를 것과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많은 영의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 하시며 출발하기 전부터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

이집트를 거쳐 이스라엘에 도착한 순례단은 사해 근처에서 하루를 지낸 뒤,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 북부 지방의 갈릴리 호수로 향했다.

아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보다 더 극심한 환난이 장차 주님의 공중 강림 이후 시작된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난을 겪게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 알려 주시며, 장차 유대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

숲이 우거진 언덕과 비옥한 평야로 이루어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갈릴리 호수를 오가며 놀라운 권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물 위를 걷기도 하셨다.

순례단은 갈릴리 해변 곳곳에 배어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세상 것들을 취하며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생활을 반복했지요. 그런데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난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갈구하던 말씀이었기에 교회에 와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최성민 집사(47세) 가족

담배도 신기하게 구역질이 나서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지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 변화가 더디어 민망한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봄, 저는 마흔두 살에 동갑내기 아내(박유나 집사)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니 아내의 나팔관이 양쪽 다 막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자궁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한약을 지어 복용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6년에는 큰 병원의 복강경 시술 전문의를 찾아가 검사를 받기도 하였지만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자연임신은 절대 안 된다는 절망적인 말만 들었지요. 그제야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초, 저희 부부가 ‘임태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금식으로 준비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것이 죄송해서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과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증거가 넘쳐나는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 몸의 이상을 느낀 아내는 임신테스트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확진 결과, 의사로부터 “임신 6주이며 아기집이 보이고 심장 소리도 들린다”는 기적 같은 말을 들었지요. 할렐루야!

2018년 2월, 3.28kg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고 아기의 이름을 클 ‘하’에 보배 ‘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보배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하진이에게 사랑을 주다 보니 늘 아무 조건 없이 주고 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김효진 자매(24세)



2018년 4월부터 체력이 폭 떨어졌습니다. 원래 업무량을 제대로 못하니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되었고, “왜 이렇게 살겠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몸이 붓고 피곤해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목도 심하게 부어서 친구가 “목이 튼튼 것처럼 뻥뻥하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병원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는지 신기해 하며 “약을 먹어서 수치를 조절해야 해요. 약을 끊으면 수치가 바로 낮아져 재발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병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들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낮아 약의 양을 늘렸고 정상수치로 조절된 후에도 약은 계속 먹어야 했지요. 몸은

여전히 힘들었고 점점 무가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만민하게수련회가 있어 감사했고, 꼭 치료받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수련회 하루 전날부터는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6일 수련회 첫날 교육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단에서 환자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를 받았고, 과연 수련회 이후부터 몸이 가볍고 피곤도 별로 느끼지 못했지요.

저는 온전히 치료받기를 사모하여 10월 8일부터 열리는 2회 연속 특별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았지요.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것과 온

전히 믿어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고, 매일 휴대폰으로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와 ‘환자기도’를 받고 출근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0일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약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저는 믿음으로 4개월 이상 약을 먹지 않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병원 검사 결과	
검사 항목	검사 결과
TSH (2013.2.12)	92.280(uIU/ml)
Free T4 (2013.02.12)	0.39(ng/dL)
T3 (2013.02.12부타)	0.75(ng/mL)
Albunin(2013.03.01)	4.6(g/dL)
Bilirubin(Total)	0.65(ng/dL)

▲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30배 이상 증가되어 있고, 갑상선 호르몬 양은 정상보다 떨어져 있었으나 기도받은 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됨.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선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8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3)6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577-707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485-9143,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사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248-6521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276-1014